

세계일보

남해관광문화재단, 'DMO 공모' 3년 연속 선정

입력 2023-02-28 14:45:45, 수정 2023-02-28 14:47:26

경남 남해군은 남해관광문화재단이 2023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지역 사회의 여러 관광 관련 기업·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간 조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육성을 통한 지역 관광수요 창출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전경.

남해관광문화재단은 2021년도 DMO 공모사업 평가에서 전국 2위(A등급)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 3개 지역만 선정하는 2023년 후속지원 2단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남해 관광 활성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난 DMO 공모사업에서 '지역과 관광객의 연결'이라는 비전을 갖고 남해관광 최일선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고객 접점 사업체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지역 관광사업체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온라인 전환사업과 함께 기초지자체 최초로 여행분야의 탄소 포인트제를 운영하는 등 남해 관광의 진흥에 힘써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남해관광문화재단은 2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DMO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인구 유입을 목표로 남해여행의 구독경제를 도입한 '남해 more' 여행구독 서비스를 추진한다.

또 지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탄탄 남해' 사업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남해 여행의 탄소포인트제를 지역 거버넌스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며, 청정 남해의 관광 브랜딩에 앞장 설 계획이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문체부 역점사업인 DMO 공모사업에서 3년 연속 선정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남해가 전국 DMO사업을 선도하고 지역관광을 견인하는 싱크탱크 중간지원조직임을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DMO 플랫폼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관계인구 증대, 지속가능한 관광남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